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21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월 5일 (음력 11월 19일) 금요일

전남도의원들, 시장·군수 출마 러시 예고

전남도의원 58명 중 24명 기초단체장 도전 예정...전체 41%

“국민의당 혼란 속 머뭇거리는 의원 있어...내달까지 정리 될 듯”

올해 6·13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원 40% 이상이 시장, 군수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전남도의회와 지역정계에 따르면 전남도의원 58명 중 24명(41%)이 자전타전으로 올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

에 도전할 예정이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박철홍 의원이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담양군수



2018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 2018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4일 오전 대구시 동구 신천초등학교에서 예비 1학년 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입학 설명을 듣고 있다.

선거에 도전하는 등 본격적인 출사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수 선거에는 국민의당 전정철의원도 출마할 예정이어서 도의원간 경쟁이 예상된다

신안군수 선거도 민주당 임흥빈 도의원과 국민의당 정영선 도의원이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과 같은 당 권욱 전남도의회 부의장 역시 보성군수와 목포시장에 각각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3선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구례군수·고흥군수 선거에는 민주당 이창호 의원과 민주당 송형곤 의원이 각각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지 단체장의 내마한 해남군수·무안군수 선거에는 국민의당 명현관 도의원과 민주당 정영덕 도의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순천시장 선거에는 민주당 김기태 도의원, 국민의당 박동수 도의원, 여수시장 선거에는 국민의당 윤문철 도의원, 같은 당 주연장도이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당 배종범도의원, 같은당 김욱기 도의원은 각각 목포시장과 나주시장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연일 도의원은 영암군수윤시석 도의원은 장성군수, 이득권도 의원은 영광군수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의당 광영체 도의원은 강진군수, 민병홍 도의원은 화순군수, 박현호 도의원은 완도군수장일도 의원은 진도군수, 조상래도 의원은 곡성군수 후보로 각각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 혼란속에 머뭇거리는 의원들이 있는데, 2월까지 정리가 되면 기초단체장 도전 여부가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안타까움

자유한국당 친박계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각각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나란히 구속됐다. 특히 친박 최정적인 최의원이 구속되면서 친박은 마지막 남은 구심점을 잃게 됐다. 당내 친박청산작업과 맞물리면서 한국당내 친박은 사실상 소멸상태로 가는 중이다.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죄로 복귀하던 지난 3월 12일,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이우현, 조원진 김진태, 박대출, 민경욱 등 자유한국당 의원 8명은 강남구 삼성동 사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미증무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잡은 후 박 대통령을 출마시키는 등 본격적인 친박 청산 작업이 시작되면서 당내 친박은 지휘를 감추게 됐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 자료사진=뉴시스



함평군, 발전 촉진형 개발계획 국토부 승인...국비 140억 확보

도로 인프라 대폭 확충...경제 활성화 기대

함평군은 발전 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발전 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을 토대로 향후 10년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활력 제고와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3개 신규사업이 승인돼 올해부터 2027년까지 국비 14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 60억원을 투입해 학교면 죽정리 국도 1호선에서 대동면 향교사거리까지 산업단지 연결도로 2차로 시설개량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국비 48억원으로 함평5일시장에 연결도로를 정비하고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한다.

2027년까지 국비 32억원을 들여 손불면 함평항에서 월전항까지 연결도로도 개설한다.

도로 인프라가 완료되면 산업단지간 물류유통이 원활해져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을 띠 전망이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발전 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승인으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로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김평춘 기자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형

일자리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